

2024  
AUGUST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  
268



# Open Doors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요한복음 13장 35절 -

##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리에 지켜가는 믿음
-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을 기억하시나요?
- 절대 버림 받지 않습니다

## 현장 스토리 \_인도네시아

- “동역자님, 감사해요. 저희에게는 아름다운 교회가 생겼어요.”
- “저는 정말 축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 박해와 선교현장 - 말리 (MALI)

###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6)

## ARISE AFRICA 캠페인

- 삶의 재건 희망의 회복 프로젝트

## Heart To Heart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에 초대합니다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8월호 | 통권 268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임훈희,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 후원하기

###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

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  
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목차

### 03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 03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리에 지켜가는 믿음
-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을  
기억하시나요?
- 절대 버림 받지 않습니다

### 08 현장 스토리 \_ 인도네시아

- "동역자님, 감사해요. 저희에게는 아름다운 교회가 생겼어요."
- "저는 정말 축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 12 박해와 선교현장 - 말리 (MALI)

### 18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6)

### 20 Heart To Heart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에 초대합니다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22 ARISE AFRICA 캠페인 - 삶의 재건 희망의 회복 프로젝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오픈도어 사역 둘러보기

#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픈도어는 특별히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성도들에게 다가가 결코 혼자 아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아 남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비전은 가장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 교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의약품, 트라우마 돌봄, 법적 인 도움, 은신처 및 학교, 그리고 기독교 문헌, 훈련, 자원을 통한 영적 지원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리에 지켜가는 믿음

메디나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신자입니다. 그녀는 기억하기로 마른 빵으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외진 곳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학교에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다가왔는데, 아버지가 가까운 친척인 부유한 남성과 정혼한 것입니다. 메디나는 결혼 후에 아프가니스탄의 관례처럼 집을 떠나 시아버지 집에서 남편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메디나는 자신이 남편을 몹시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녀에게 친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관청에서 일했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했어요. 그는 불만을 자주 표현하곤 했어요.”

메디나는 결혼하고 2년이 지나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맘때 그녀 남편의 오래된 학교 친구가 그들의 인생 가



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메디나는 이 우정이 남편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 보기 전에는 - 어떻게 느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남편의 관심이 저와 딸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남편의 친구에 대해 분개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저는 열정과 사랑으로 들어주었어요.” 친구를 증인으로, 메디나의 남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후 몇 개월 동안 남편은 그녀에게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새롭게 발견한 이 신앙은 저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며, 저와 남편은 함께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부부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그들이 배운 것을 나누며 다른 신자들을 가르치기로 위험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남편이 9명, 제가 4명으로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사역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러한 도전들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몇년 째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10개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발각되면 탄압, 폭력, 심지어 살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메디나와 남편은 기쁨으로 가르쳤고- 메디나가 또 한번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쁨이 더 했습니다. 그녀는 곧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남편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하지 않고 떠났어요. 저는 매우 걱정했지만, 남편은 염려할 일이 없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남성들이 다녀가고 머지않아 메디나의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이 40일이 지났고, 저희 기독교 리더들 중 한 사람은 남편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제가 기뻐하기를 바라며 위로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남편과 동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안을 찾았어요. 저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권력을 되찾으며 메디나는 여성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많

은 어려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여성들로 하여금 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의 삶은 도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한은 하나님께서 메디나에게 분부하신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그룹에서 능숙하게 회의를 진행하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희를 축복해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그녀는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공부 자료, 식량, 그리고 연료를 도움 주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전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디나는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 시편 8편을 기도합니다:

- <sup>1</sup>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 <sup>2</sup>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 <sup>3</sup>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 <sup>4</sup>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sup>5</sup>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sup>6</sup>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 <sup>7</sup>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 <sup>8</sup>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 <sup>9</sup>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기도와 격려와 생계 프로젝트로 지하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가명과 재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는 저를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알았죠. 그는 매일 항상 저와 함께 계세요.”

-이집트의 사라\*

사라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이 지지하는 많은 비밀  
신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오픈도어 파트너가 사라는 만  
났을 당시, 그녀는 정서적으로 비탄에 빠져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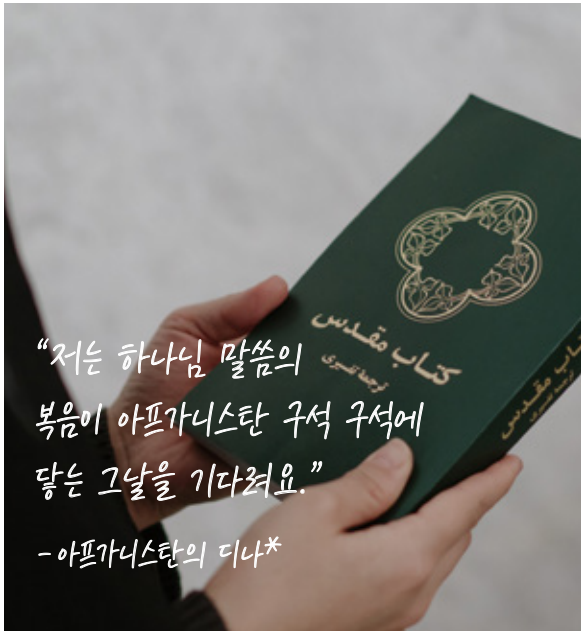
사라의 남편은 그녀의 신앙을 발견하고 나서 두 자녀  
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라는 최악의 악몽 가운데서 오픈도어 파트너의 지지  
덕분에 위로와 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는 사라와 함께 기도하고, 경제적인 지지를 제  
공하고, 그녀가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주고, 새로운 직  
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기적  
처럼 자녀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라와 같은 비밀 신자들에게 아낌 없는 지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명과 재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아프가니스탄 구석 구석에  
닿는 그날을 기다려요.”  
- 아프가니스탄의 디나\*

디나의\* 삶은 힘듭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비밀 신자들이 많습니다 -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 말이죠. 디나와 그녀의 남편은 그 위험을 감수했고, 남편은 순교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디나와 남편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은 깊이 뿌리 박혀 그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왔습니다.

디나는 여러분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전세계 형제 자매들의 도움에 감사를 전해요. 저는 신자들이 더 많은 힘을 경험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위해 기도를 요청드려요.”

\*가명과 재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며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의 힐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나누는 것은 힐라를\* 자기희생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힐라는 젊은 미망인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이 위험이 실제적인 것을 압니다. 기독교 공부 자료를 받으려간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당했음을 믿고 있습니다.

힐라는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이들 중에 있으며 저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자들이 복음을 활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이 탄압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과 어려운 경제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가명과 재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 절대 버림 받지 않습니다

비밀 신자들을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여러분은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해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박해로 인해 미망인이 된 카다가\* 그녀의 가족에게 공급하고 돌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람 덕분에 전세계 카다와 같은 비밀 신자들에게 성경, 제자훈련, 그리고 생계 프로젝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계속해서 비밀 신자들 지지하기

- 4만원 - 5명의 비밀신자들에게 성경을 선물하여 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8만원 - 비밀신자가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 12만원 - 10명의 비밀신자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 가운데서 굳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02-596-3171 / 010-7548-317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상담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중등/걸프  
(신청 시 가입한마디에  
'비밀신자캠페인'을 기록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계좌입금:

중등 /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명에  
'비밀신자캠페인'을 기록해주세요)

# “동역자님, 감사해요. 저희에게는 아름다운 교회가 생겼어요.”

인도네시아

레워누 마을에서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리스트 공격이 일어난지 삼 년이 지났습니다. 희생자들은 그들의 깨진 삶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들이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옥과 교회 건물을 공급해주신 전 세계 성도들의 사랑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칸디의 삶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테러리스트들이 그녀의 마을 레워누를 공격해 아버지와 남편을 학살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한 부분이 그들과 함께 없어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매우 가까웠던 아버지를 잃고 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 자녀를 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세 자녀를 위해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저의 전체적인 상태는 괜찮아요. 제 자녀들도 말이죠. 큰 아이가 15살, 둘째가 13살, 그리고 막내가 9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재혼을 했어요. 저희는 림반통고아 마을에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기부를 통해 얻은 집이에요.” 그녀는 막내 아이가 자신의 고양이와 노는 것을 바라보고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새 남편과 함께 삶을 다시 세우고자 하고 있어요. 저희에게는 땅이 조금 있어서 그곳에서 코코아를 생산하고 있어요. 저희 땅은 남편의 마을과 가깝기 때문에, 저는 때때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이곳으로 돌아와 교회에 참석해요.”

대다수의 생존자들은 비슷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생존자들 중 한 명인 데위는 안전을 위해 그녀가 가정을 꾸려온 레워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집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곳에는 저희가 일할 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레워누 마을로 가서 일하고 저희 땅을 일구어요. 사실 저희는 여전히 그곳에 갈 때 마다 두렵지만, 거기서 저희의 미래를 만들어 내요. 그들은 레워누에 있던 교회를 불태웠지만 이 곳에 새로운 교회 건물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2020년 11월 27일, 시기에 있는 레워누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되고 나서 전 세계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 갔습니다. 그들은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박해 받는 교회를 지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재민들에게는 그들의 고통을 완화해줄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일년 후에 모든 생존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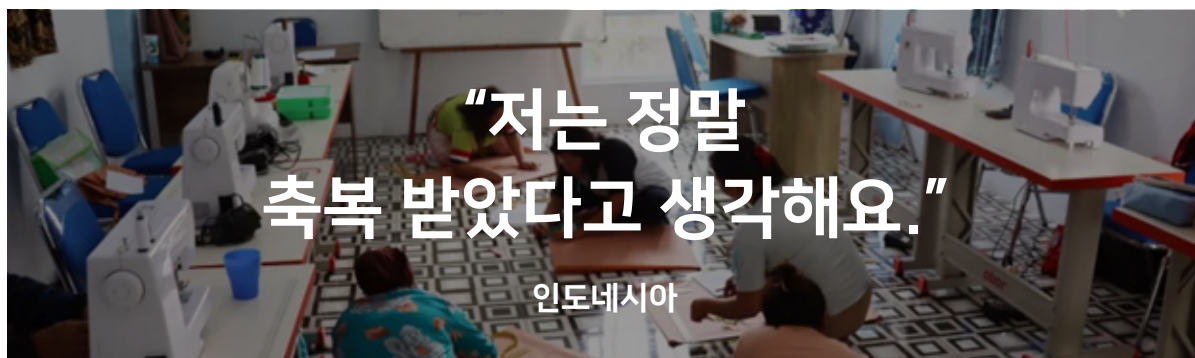
전세계 성도들 덕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림반통고아 마을 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새롭게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는 한 때 피해를 입은 교회를 함께 모았습니다.

구세군 교회의 메이저 유스미나 오베트 목사는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교회와 (교회 옆) 목사 사택을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 주신 동역자님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해요. 이러한 건물들에 깜짝 놀라곤 해요; 팔루 시티에서 80 킬로미터 떨어진 이 같은 산간지역에 이러한 아름다운 건물들이 서있다는 것이 말이죠.”

또 다른 생존자 요나탄도 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교회가 설립된 배경에는 저희의 삶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저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람에 감사를 드려요.”

## 기도해주세요

- 현재 생존자들은 집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웃들로부터 전기를 “빌려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것을 오래 전에 약속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방 정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것이 곧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팔루 그리고 림반통고아를 포함한 인접한 지역에서는 지진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2023년 8월 대규모 지진은 목사관에 균열을 몇개 냈고 그때 당시는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관이 속히 보수되어 메이저 유스미나 오베트 목사가 그곳에서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슬림 배경의 여성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고 흔히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신앙은 직업을 찾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 훈련 센터 (WTC)는 그들의 장래를 위해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 수 있게 하도록 존재합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길가 건물에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는 오토바이를 탔고,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바느질로 옷을 만드는 방

법을 배울 생각에 신이 났는데, 이는 이후에 행사에 참석할 때 드레스를 사지 않고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늘 그렇듯이 하루가 아침 묵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자와바랏 주 여성 훈련 센터의 훈련사인 아유가 말하기를, “여성들이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갖춰지기 위해서는 아침 묵상이 필수적이에요. 저희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요.”

여성 훈련 센터 (WTC)는 여성들, 특히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MBB) 위한 훈련 기관으로 그들이 장래에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술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WTC가 존재하게 된 것은 MBB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하고 나서 직업을 얻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들의 재정을 압박하고 이전 신앙으로 유혹 당할 취약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인은 WTC의 혜택을 누린 참가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인생길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가족의 삶은 남편이 할란\*이라는 전도사와 친구가 되고 중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할란 목사님은 저희 집에 자주 들르세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는 그분 처럼 친절하고 다정한 분은 만난 적이 없어요. 더욱이 저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눠주셨을 때 평안을 느꼈어요.” 할란의 정기적인 방문은 이인과 그녀의 남편이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주로 받아들이어 인생의 새 장에 착수하도록 촉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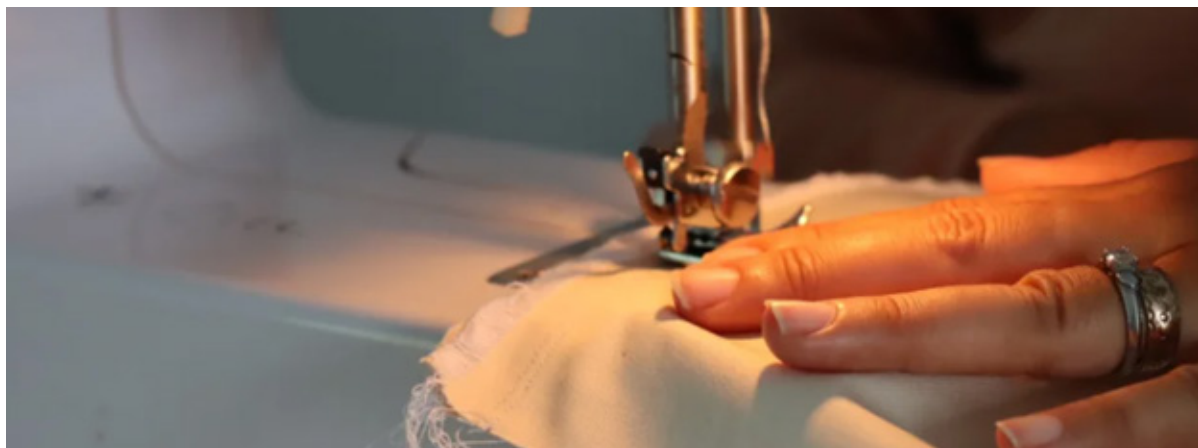
오픈도어 파트너인 할란은 이인을 WTC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WTC가 이인과 그녀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직면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 훈련에 모든 것을 바치고 열정을 반결했습니다. 그녀는 전년도에 반에서 우등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재봉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봉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잘한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제 저는 저희 가정의 경제 상황에

도움을 줄 재단 서비스를 이웃들에게 제공해요. 올해는 다른 참가자들과 저의 기술을 나눌 수 있었어요. 정말 축복이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 감사해요. WTC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요.”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10개월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 시스카\*가 말하기를, “제가 재봉 수업을 받는게 처음이라서 도전일 줄 알았지만, 이것이 저의 인내심과 꼼꼼함을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완주하는 것에 대해 기대가 되었어요.” 아이다\* 또한 새로 얻은 기술을 기뻐했습니다. “저는 무늬도 만들고 드레스, 셔츠, 잠옷, 바지, 그리고 치마와 같은 옷을 재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요.” 참가자들 중 한 명인 티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재봉을 통해 기억력을 훈련할 수 있었어요.” 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할란 목사는 이 훈련이 자와바랏주에 있는 더 많은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해주세요

- 이 과정을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이 얻은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잘 지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할란\*과 그의 아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은 사역자로서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섬길 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WEEKLY

---

##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채널 추가하세요 ➕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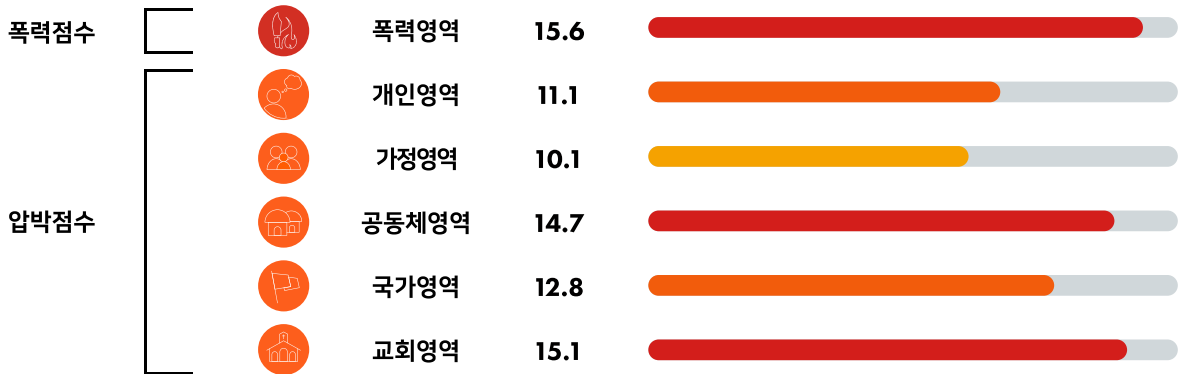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말리 (MALI)

14위



## 폭력과 압박의 정도



여섯 개 영역은 각각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 $6 \times 16.7 = 100$ ).

## 중요한 발견

보안 전망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말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은 초기 중심지인 북부를 넘어 점점 남부 지역도 괴롭히고 있다. 2012년, 이전에 교회들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이미 상처를 입은 기독교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더욱 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다. 국가 기관들의 해체는 지하디스트 단체들이 채우고자 하는 공백을 자아냈고, 이는 국가의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특히 곤경에 처하게 했다. 분열된 안전 장치는 이러한 극단주의 단체들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전도 활동들은 폭력과 납치의 위험이 따른다. 일부 지하디스트들도 공격을 조직화하고, 이미 불안한 상황에 복잡성을 한 층 더하고 있다. 무슬림 배경에서 온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특히 취약하다. 그들이 이전에 직면했던 가족의 및 공동체의 압박은 이제 지하디스트들의 활동 증가로 악화되었다. 법과 질서의 부식은 극단주의자들로 하여금 개종한 이들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대담하게 만들고, 종교적 자유 문제를 더 극심하고 긴급하게 만든다.

# 말리 (MALI)

## 국가 정보

지도자 : 아시미 고이타 임시 대통령

인구 : 22,106,000

기독교인 수 : 497,000<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의원집정부제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비율
기독교인	497,000	2.2
이슬람교도	19,674,000	89.0
민족종교주의자	1,907,000	8.6
불가지론자	25,600	0.1

출처<sup>2</sup>

민주주의 및 시민 자유에 대한 강한 기록으로 인한 한 때 상대적인 관용의 불빛과 수피교의 완화된 영향력과 함께 말리는 기독교 인구의 안보 및 자유에 있어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2012년 내전은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와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채운 공백을 자아냈고, 특히 이러한 단체들이 활발한 북부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에 대한 극심하고 영속적인 위협을 초래했다.

프랑스 군대의 철수와 유엔으로 하여금 나라를 떠나도록 하는 요구 이후에 상황은 더욱 더 위태로워졌다. 국제 평화 유지군이 물러남으로서 러시아의 민간 용병 업체인 와그너 그룹이 강력해졌다. 그들은 민간인들에 대한 잔학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어 존재 자

체가 이미 불안한 보안 영역을 복잡하게 만든다.

2021년 5월 이래 아시미 고이타 부통령이 이끈 말리 정부는 이러한 지하디스트 위협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취약하게 두었고, 납치, 무장단체 구성원으로 강제 모집, 그리고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의 암울한 전망에 직면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공동체의 포위감을 더 악화시켰다.

곤경은 한결 같지 않다; 한편 주된 기독교 교파인 로마 가톨릭교회, 그리고 많은 개신교 공동체들은 주로 바마코와 같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심지어 교사와 같은 민간 역할에 종사할 때도 특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2023년 6월, 군사 정부 하에 새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열렸다. 서아프리카 제국 경제 공동체에 (ECOWAS) 의해 명기된 것과 같이 정부는 이것이 2024년 3월까지 헌법의 그리고 민간의 통치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 군대, 와그너 그룹과 같은 외부 행위자들의 어두운 역할과 정부의 부실한 실적을 고려해볼 때, 말리 기독교인들의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고 불안정하다.

<sup>1</sup> 정보 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sup>2</sup> 정보 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비록 대부분의 말리 기독교인들은 남부에 거주하지만, 나라의 북부와 북동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들이 증가하는 위협의 결과로 점점 더 압박에 처하게 되었다. 나라의 남부에서도 소규모의 극심한 박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말리에서 국외 거주자 기독교인들은 고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납치의 표적이 되기 쉽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말리 사람들 중 3% 미만이 기독교인이고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과 같은 역사적 공동체에 속한다. 남부에 거

주하는 이들은 반대편 북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보고기간 동안 이슬람 단체들에 의한 폭력과 납치의 위협이 증가했다.

###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주로 보조족과 도곤족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말리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위협에 더해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여러 정도의 압박에 직면한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는 주로 말리 남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카리스마파 및 펜테코스트파의(오순절) 공동체들을 포함한다. 이 공동체들은 그들의 예배 방식과 전도 활동들로 인해 대체적으로 사회의 적대감을 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 박해 및 차별의 주요 근원

### 이슬람의 탄압

말리 내 이슬람교 온건파는 2012년에 분열되었다. 와하비즘과 이슬람 과격화 및 정치와의 세계적 추세에 크게 영향을 받은 이슬람교도들은 북부에서 엄격한 샤리아 정권을 도입했고, 교회들을 철거하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다. 말리 남부에 있는 교회도 와하브파 단체들에 의해 점점 더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국가는 당국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방대한 사막 지역이 있는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범죄조직들은 이것을 서유럽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기회로 삼는다. 대부분의 범죄조직들은 이슬람 단체들과 동맹을 맺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잔존하는 많은 투아레그 반군들은 정부와 그 협력자들에 의한 패배에 직면하면서 무기, 마약,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법 거래에 의존하는 범죄 수완가들이 되었다.

### 씨족의 탄압

비록 말리 인구 대부분은 무슬림이지만, 이들은 흔히 자신들의 신앙을 부족 관례들과 혼합한다. 나라의 외

진 지역들에 있는 대부분의 부족 또는 민족 지도자들은 이러한 관례를 거부하는 무슬림들 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대적이며, 이는 부족 지도자들과 무슬림 또는 기독교인들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 독재 정치

기독교인들을 박해로부터 보호할 정부 관리들의 의무에 있어서 노골적인 유기가 있어왔고, 그 원인으로 최근 특히 지난 쿠데타 이후 독재 정치에 대한 문제가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상 법 아래서 보안 또는 보호를 구하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은 군사 정권 세력에 있어 위협으로 여겨진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공격들은 여성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납치와 강제 결혼을 위협한다. 이는 단지 기독교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편,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이슬람을 퍼뜨리기 위해 이용하는 흔한 수법으로 여겨지며 널리 우려되는 위협이다. 여성 개종자들은 괴롭힘, 위협, 성적 학대, 물리적 폭력, 심지어 살해에 가장 취약하다. 독신인 개종자들은 강제 결혼을 당하고, 기혼인 개종자들은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가정으로부터 내쫓김은 지지의 결여로 인해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이슬람 복장 규정을 취해야 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자녀 양육권 제한
- 강제 종교적 복장 규정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정으로부터 강제 내쫓김 - 추방
- 폭력 - 살인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 언어적

### 남성

말리 전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기독교인 남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이유로 특히 살인, 협박과 폭력, 그리고 물리적 공격을 당한다. 시골 또는 외진 지역들에 있는 이들은 폭력 단체들, 흔히 지하디스트들의 손에 납치, 살해, 그리고 강제 모집의 위험을 무릅쓴다. 기독교 가옥들과 사업들에 겨냥된 공격들은 가정들을 빈곤하게 하고 기독교 공동체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은 사회적 거부, 또는 직장 또는 교육에 대한 접근권 축소로 인해 압박을 받는다. 기혼인 개종자들은 아내로부터 강제 이혼을 당할 수 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회적 공동체/연결망 접근 제한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강제 이혼
- 군대/민병 징집/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살인 / 신체적 / 정신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의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14	79
2023	17	76
2022	24	70
2021	28	67
2020	29	66

점수가 3점 오른 것은 폭력사태 증가와 지리, 빈도, 강도에 있어서 압박 확대에 기인한다. 지난 5년의 보고기간 동안 말리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때 79점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IMB

## 보고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2년 5월 6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무장 강도가 Heremakono라고 불리는 한 마을의 목사를 납치했다 (Diabaly, Niono).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 당한 기독교인들	공격을 당하거나 폐쇄된 교회들 또는 기독교 건물들	강간을 당하고/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기독교인들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들
2024	10*	10*	10*	100*
2023	10*	10*	10*	2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려움이 주어졌고(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 개인영역

무슬림 배경을 가진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 그러나 나라의 북부에서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널리 알려지면 누구든 괴롭힘과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한다.

### 가정영역

말리에서 계속 진행 중인 무력 충돌은 기독교 관행을 위협하게 만들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많은 국가들과 달리, 기독교는 법이 아니라 이슬람교 와하브파 이외에 다른 신앙의 실천은 이슬람 단체들로부터 폭력적인 보복의 위험을 무릅쓴다. 북부에서는 교사들이 협박을 당하고, 아이들은 코란 관련 수업들을 참석하도록 강요 당한다. 또한 그들은 상당 부분 기독교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들을 마드라사로 바꾸도록 요구했다. 무슬림 가정들은 가족의 명예를 이유로 가족 구성원의 개종을 용인하지 않고 개종자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 공동체영역

북부에서 적대감과 폭력이 가장 극심한 한편, 이는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당국들은 적대적인 종교적 선전을 금하고자 시도했지만, 모스크의 설교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 점점 더 과격해졌다. 세속 국가 법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리 중

부에 있는 현지 지역사회들로 하여금 샤리아법을 채택하라는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 단체들의 지배를 받는 지역들은 교회들을 철거하고 기독교인으로 의심을 받는 모든 이들을 감시한다. 기독교인들은 납치, 강간, 강제결혼, 그리고 살해의 위험을 무릅쓴다.

### 국가영역

공식적으로 말리는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는 세속 국가이지만, 북부의 전사들은 이러한 자유를 반대한다. 사회 내에 거의 전무한 정치적 및 사회적 대표성의 결과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도록 자주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압박은 특히 말리 군대, 보안기관, 그리고 공중 보건 및 금융분야에 만연해있다. 기독교인 특히 선교사로서 말리에서 여행하는 것은 극심하게 위험한데, 근년에 납치 및 살해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 교회영역

북부의 피해 입은 교회들을 되돌리고 보수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난민들은 폭력의 위협 속에서 임시변통의 교회들을 건설하는 것을 강제로 중단 당했다. 서방의 비정부기구들(NGOs), 유엔 평화 유지군, 또는 외국 정부 연합군들과의 접촉은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 흔히 '전도'라고 해석된다. 이것을 구실로, 현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반란 단체들은 취약한 기독교 인구들 또는 소수민족들을 공격할 것이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 위반

말리는 다음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말리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그들의 개종이 발각되거나 단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한다 (ICCP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근거로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표적이 되고 살해를 당한다 (ICCP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상징을 착용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표적이 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것을 철회하도록 고문을 당하고 압박을 당한다 (ICCPR 제7조, 제18조)
- 기독교인 부모들은 그들의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 (ICCPR 제18조,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논의하거나 전도에 관여하면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18조, 제19조)



##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기독교인들에 더해, 말리의 다른 소수 종교 집단들은 토착 신앙 체계의 지지자들을 포함한다. 비록 이러한 신앙들이 역사적으로 이슬람과 공존했지만, 이슬람 무장단체의 증가는 공존을 위협했다. 현지 시아파들도 차별에 직면한다.

## 오픈도어의 말리 사역

오픈도어는 이슬람 무장세력이 장악한 투아레그족 반란 이후 2013년 부터 말리 사역에 개입했다. 말리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오픈도어의 비전은 현지 교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박해 가운데서 회복력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제공하도록 돕고 있다:

- 박해 대비 훈련 및 지원
- 경제적 강화 프로젝트
- 제자도 향상 프로그램





## 북한선교현장

김서운 전도사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6)

여정이 길어지니 점점 요령이 생겼다. 이제는 낮에도 인적이 없으면 길을 따라 걷다가 오토바이나 차 소리가 들리면 다시 눈 속이나 비탈로 몸을 숨겼다. 우리에게 숙소는 산 전체였고, 우리의 침대는 눈 덮인 산 속이었으며, 목이 말라 마시는 물은 하얀눈이었다. 그러다 얼어죽을 지경에 놓였다 싶은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 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몸을 녹여줄 비어있는 초막집을 만났고 잠깐씩 몸을 녹일 수 있었다. 그 중 한 과수원의 초막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 초막집의 천장에는 주렁주렁 씨앗이 매달려 있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씨앗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의 것을 함부로 먹을수 없다는 생각에 건드리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그 씨앗들은 봄이 되면 밭에 뿌릴 씨앗으로 약을 쳐 놓은 상태들이었다. 그 때 배고픔에 못 이겨 그 씨앗에 손을 대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한참을 앉아 쉬고 있는 그때 문이 열리며 그 과수원 주인과 그 아들이 초막집에 들어왔다. 그 부자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집주인은 끝까지 중국말로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지만 옆에 선 이제 막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들은 더듬더듬 조선말을 써가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기도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

우리를 도와주자고 했다. 우리가 허기진 모습을 본 그 집 아들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우리에게 내주자고 보냈다.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어주며 빨리 먹고 가라고 손짓하셨다. 우리는 고마워하며 받은 도시락으로 요기를 하고 그들이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 그곳을 빠져 나왔다. 그 아저씨는 우리가 행여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 다시 올까봐 불안했던지 우리가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다. 종종 마주하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 덕분에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수 있었지만, 추위와 배고픔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우리 가족 모두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말았다. 잠깐 누우면 눈 속에 파묻히게 되고 그 상태로 깊이 잠들면 동상으로 얼어죽는다며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깨우셨다. 여동생과 나는 그래도 이 악물고 걸었지만, 이제 갓 6살인 남동생은 잘 걷지도 못했다. 춥고 배고프고 발도 아프고 아픈곳이 없다며 남동생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칭얼거렸다. 이대로는 그 누구도 한 걸음조차 움직일 수 없음을 아셨던 어머니는 뭐라도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결심하셨는지 어린 나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 가셨다. 그리고 대문이 열려있는 한 집을 기웃거리셨다. 마침 개 짖는 소리에 집주인 아저씨가 나오셨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 중국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어머니와 나는 손짓 발짓 다해

가며 배고픈 시늉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숨겨 놓으셨던 100위안을 꺼내서 아저씨에게 주시고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의사 표시를 하였다. 한참 돈을 빚에 비취보다가 우리의 물골을 쳐다보시던 아저씨는 곧 부엌에 들어가시더니 만두 두개를 가지고 오셨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아마도 본인의 식사를 위해 준비한 음식인듯 했다. 아저씨는 그 만두를 우리에게 건네시고는 돈은 받지 않으시고 어서 가라고 손을 내저으며 우리를 내보냈다. 처음 보는 만두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나는 배가 불러왔다. 동생들이 있는 산속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만두를 4등분해서 나누어 주셨다. 나는 한 조각은 입에 넣고 다른 한 조각은 아껴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 만두 한 조각의 힘을 빌어 다시 목적지를 향해 걸었다.

우리 가족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남조선으로 정해져 있었다. 중국에서 정착해서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남조선에 가기 위해 길림성 길림시에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떠난 것이 전부였다. 요즘에야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으며 자동차로 이동한다면 하루면 도착할 거리이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24년 전의 우리는 길이 보이면 무작정 그 길을 따라 걸었고, 그렇게 수 많은 밤을 헤매고 또 헤맸다. 아무리 걸어도 우리들 뒤편에는 압록강과 북한이 계속 보였다. 언제든지 북한의 군인들이 강을 건너와 우리를 붙잡아 갈 것만 같았다. 두려움에 함부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잠을 자곤 했다. 어머니와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특히 이제 여섯살 정도 된 어린 막내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다. 더 이상 지쳐서 못 견뎌다는 남동생을 어머니께서 등에 업고 발길을 재촉하기도 하셨다. 그렇지만 어머니도 힘드시기는 마찬가지였고 설상가상으로 험한 길을 걸으며 신발도 다 헤어졌다. 어머니 발바닥은 찢어져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갈라진 발고랑 마냥 속살이 보였지만 행거온 실과 바늘로 찢어진 발바닥을 꿰매는 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였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남동생은 이제 자기를 그냥 산에 버리고 가라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엄동 설한에 변변한 신발 하나 없이 앙상하고 조그마한 발로 험한 길을 걸어온 동생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이해

가 되었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는 어머니가 원망 스럽기까지 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어머니는 남동생더러 알아서 오라며 내버려 둔 채 저만치 앞으로 가버리셨다.

나는 진짜 엄마가 남동생을 두고 가시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남동생이랑 울었다. 그리고 조금만 힘내보라며 남동생을 달랬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남동생은 나의 다독임에 다시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앞서가신 엄마를 따라 가려고 부지런히 걸어갔다. 한참을 걸으니 저 앞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멀리가지 못하시고 나무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이 오고 갔지만 어찌 그것이 진실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다시는 모진말 하지 않고 버리고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사과하셨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힘을 내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아... 아까 먹었던 만두를 하나만 더 먹었으면 힘이 날 텐데...” 하며 중얼거리셨다.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배가 고파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무심결에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아껴 놓은 만두 조각이 손에 잡혔다. 손에 잡힌 그 만두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만두!”하며 꺼내 드렸다. 어머니는 내 손에 든 그 만두를 보자마자 누가 뺏어 먹을새라 순식간에 삼키셨다. 나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드시는 모습을 본적이 없었다. 어머니 자신도 어찌 그리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는지 상상도 못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는 한참을 나의 빈손을 보시다가 아껴놓은 만두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광경에 놀라 눈물이 글썽하게 고인 나의 눈과 시선을 마주치셨고, 무안하게 들고 있는 내 손을 쏙 잡으시고 고마워 하셨다. 여전히 어머니는 그때 그 만두를 이야기 하시며 나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이야기하신다. 그 만두 한 조각이 어머니를 걷게 하는 힘이었으며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끝까지 지키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큰 격려였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금 서로를 격려하며 꼭꼭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걸을 수 있었다.

(계속)

Heart To Heart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에 초대합니다.

2024년 10월 8일(화)-10일(목)

## 머스카슬론은 어떤 대회인가요?

대회를 홍보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다. 올해 세번째로 열리기에, 머스카슬론이란 이름이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생소하기만 하다. 머스카슬론은 원래 크리스찬 남성운동을 주도해온 4M이 전세계 인권신장과 재정적 지원을 목표로 아프리카, 중동, 북한 등지에서 기획한 극한 스포츠 이벤트의 일종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머스카슬론은 북한에서 고통 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온 몸으로 체득하기 위하여 철원, 연천 등에서 진행된다. 매년 네델란드에서 오는 참가자들은 1만 유로(한화 1천5백만원 상당)를 모금해 참석한다. 이 모금액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던 필자는 첫번째 준비 미팅에서 이 질문을 던졌다.

“네델란드인에게도 1만 유로는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은 매년 기도하며 이 행사에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교회, 직장, 학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이벤트를 통해 모금을 시작하고 기도요청을 하지만 결코 쉬운 임무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형제의 간증을 들려주었다.



## 3분의 기적

머스카슬론에 간절히 참석하고 싶었던 한 형제는 기도하며 열심히 모금했지만 1,000유로도 모금하지 못하고 절망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머스카슬론 참석에 진심이었던 형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축구클럽 구단주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구단주는 이 형제의 간절함에 감동이 되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를 향한 형제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3분의 시간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형제의 호소를 들은 관중들은 즉석에서 핸드폰을 꺼내 형제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유로가 차고 넘쳤습니다. 머스카슬론은 단순한 극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신앙의 여정(딤후4:7)입니다.

## 머스카슬론의 영성

이러한 영성을 가진 40명의 네델란드인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남북의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한국 땅을



찾아옵니다. 각자 체험한 신앙이 서로 다르지만 북한 지하교회를 향한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의 자리에 한국청년들을 초대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사상을 초월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엡4:3)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1회 참가자 마리영 론덴버그는 그 때의 감동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DMZ 가까이에서 달렸는데, 달리면서 북한 지하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단지 우리가 달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분의 능력으로 무언가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행함으로 인해 그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달립시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와 복음적 평화통일의 그 날을 위하여...

2024 머스카슬론 한국대회

# CAMP PRAY RUN!

너는 일찍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계시록 3:2

24. 10. 8(화) - 10(목)

<b>장소</b>	경기도 연천 고대산 캠핑 리조트	<b>참가비</b>	모금 참가자 100만원 일반 참가자 30만원
<b>모집인원</b>	선착순 50명 <small>*해외참가자 40명과 함께 합니다.</small>	<b>모집기간</b>	1차 8월 2일(금) 2차 8월 30일(금)
<b>일정</b>	연천 땀땀기 기도회 캠핑(고대산 캠핑 리조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b>대회등록</b>	산악 하이킹 (20km, 40km, 60km) 산악 마라톤 (10km, 20km, 42km) 산악 자전거 (100km)
		<b>신청방법</b>	온라인 접수 (아래 QR코드 참고)

문의 02-595-3171    이메일 edsk@opendoors.or.kr    협력 DMZ 선교연합  
주관 한국오픈도어    주최 4M & 오픈도어NL





ARISE AFRICA 캠페인

# 삶의 재건, 희망의 회복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긴급구호: 삶의 재건, 희망의 회복

**식량, 쉼터, 심리치료, 식수위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현물 분배 및 조건부 현금 제공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원**

2024년 오픈도어 WWL보고서에 따르면 신앙때문에  
살해당한 전세계 기독교인의 약 82%(4,118명)가 나  
이지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는 보  
코하람, ISWAP(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 플라니  
무장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기독교 공동체  
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습격, 살인, 납치, 성폭력,  
그리고 생계 파괴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  
월17일-7월10일 기간에 플라토주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315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  
었습니다. 또한 6,603가정이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그  
중 18,751명이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대부분이 기독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0-5세 사이의 고아들도  
6,06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4  
일 성탄절 전날에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20개 마을이  
플라니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았는데, 113명이 살해되  
고, 3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도어는 현장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하여 나이  
지리아 플라토주와 베뉴에주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복구  
와 희망의 회복을 돕기위하여 긴급구호 계획을 추진하  
며, 기도와 더불어 후원을 요청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플라토주와 베뉴에주의 교회의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1단계 긴급대응(2023년12월-2024년 2월, 3  
개월)과 2단계 지역사회 회복(2024년 2월-2025년  
1월, 12개월)에 집중하게 되며, 한국교회의 참여를 요

청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특징은 초기 긴급 대응 단  
계에서 조기 복구 및 자생력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정  
서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도와 성경전달도  
함께 진행됩니다.

**“ARISE AFRICA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그 긴박성을 알  
리기 위하여 지역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의 상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교  
회가 부흥할 수록 복음에 적대적인 세력들의 공격은 잔  
악해 지고 있습니다. 무장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기독교인 마을을 공격하여, 무자비한 살인, 납치, 방화,  
가산 몰수등 삶의 터전을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하라사  
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은 나이지리아입니다. 지난해 전세계 살해된  
기독교인의 80%가 나이지리아에서 발행한 것이 이것  
을 증명합니다. 이에 오픈도어는 이러한 무자비한 폭  
력적 박해에 맞서서 아프리카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희망하며, 전세계 교회와 더불어 기도와 물질로 참여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프리카여 일어나라 폭력적 박해에 맞서서... “ARISE  
AFRICA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는 한국오픈  
도어선교회(02-596-3171)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 드림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1-884982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